

안 병 국

1959 ~

경상남도 밀양출생

학력

이탈리아 국립도예학교 졸업
국민대학원 조형미술 졸업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 졸업

경력

한국현대도예가회전 · 한국공예가협회전 · 대전도예가회전
(사)한국공예가협회 창립50주년 특별기획전
'공예란 무엇인가'(서울)
Fletcher Challenge Ceramics Award 공모전
수상자 초대전(뉴질랜드)
'Dal Oriente al Ballardin'전(파엔자 이탈리아)
이타미 국제 공모전 수상자 초대전(일본)
관서한국문화원 개원5주년기념 한국현대도예초대전(일본)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충청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An Byounggug

1959 ~

Born in Milyang, Gyeongsangnam-do

Education

Graduated from the National Ceramics School of Italy
Graduated from the National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Graduated from Mokwon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Art

Work Experience

Exhibition of Incorporated Korea Contemporary
Korean Craft Council Exhibition
Exhibition of Incorporated Daejeon Ceramic Artists Association
Special exhibi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rafts Council 'What is craft?'(Seoul)
Invitational Exhibition of Fletcher Challenge
Ceramics Award Winners(New Zealand)
'Dal Oriente al Ballardin' Exhibition(Faenza, Italy)
Invitational Exhibition of Itami International Contest
Award Winners(Japan)
commemorating the 5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Japan)
Invited Artists of Chungnam Art Competition
Judge in the National Contest of Chungnam Industrial
Design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
Judge in the Chungnam Grand Art Exhibition

청도 소사랑 입체 미술대전 운영위원
대전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 도자기 심사위원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심사위원
개인전 14회(서울, 대전, 이태리), 그룹전 300여회

현재

목원대학교 미술 · 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학과장
(사)한국공예가협회 대전 · 충남지부장
(사)한국현대도예가회 회원, 대전도예가회 회원, 도원회 회원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남원국제 도예캠프 초대작가

작품소장

이탈리아 국제도자박물관(파엔자 이탈리아)
의흥미술관(중국), 서울 동광교회, 목원대학교 총장실
골프존 문화재단 외 다수

Steering committee member in the Cheongdo Sosarang
3D Art Competition
Judge of the ceramics section in the Daejeon Skills Competition
Judge in finals of the Korea Crafts Competition
14 solo exhibitions(Seoul, Daejeon, Italy), 300 group exhibitions

Present

Head of Department of Ceramics Design
Mokwon University College of Art · Design
Korean Crafts Council Daejeon, Chungnam Branch Manager
Member of Incorporated Korea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Association, Member of the Daejeon Pottery Society
Member of the Taoyuan Society
Invited Artists of Chungnam Art Competition
Namwon International Ceramics Camp Invited Writer

Collection

International Museum of Ceramics(Italy Faenza)
Yixing Art Gallery(China), Seoul Donggwang Church
President's office in Mokwon University
Golfzone Culture Foundation etc

An Byounggug's Clay Works

< 안병국 작가조사 - 연구 - 비평 >

안병국



1959~



청자 각발, 240×240×120cm, 청자토, 밤색유, 1,250℃ 환원염 번조, 1984

도자 입문 당시의 초기작으로 물레를 활용한 전통도자에 몰입했던 당시의 대표작품이다. 제작방법은 청자토를 이용해 물레로 두껍게 성형하고 반건조 상태에서 모서리의 일부를 살살 두드려 사각방형에 가깝게 만든 다음, 조각칼로 외면을 깎아내어 제작하였다. 조각칼로 외면을 깎아내는 작업은 물레성형 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굽다리의 외부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는 수날법[손 성형]으로 만든 귀를 서로 대칭이 되는 위치에 점토물로 붙였다.

마무리는 밤색유를 씌워 고화도에서 환원염으로 번조하였다. 그러나 공기가 살짝 혼입된 듯, 전체적인 색조는 미세하게 황색을 띤다. 이 각발은 근대기에 종이나 목기로 만든 유사한 각발에서 모티프를 얻어 응용했으며, 흔히 집에서 과일이나 다과 등을 가볍게 담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기물이다. 이 작품은 안병국의 초기작으로 평생동안 그가 작업했던 전통도자의 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이종민 글 발췌 -



사이호, 280×280×230(mm), 청자토, 화장토, 투명유, 1250℃, 산화소성, 2014

안병국의 유한성은 존재와 시간을 모두 다루고 절대적인 미의 관점에 도달하고 있다. 숫자의 '0'이 절대적인 숫자의 개념인 것처럼 숭고한 미의 세계에서도 도예처럼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시간성이 내포하고 있다. 각 시대의 정신을 담는 도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도예'이다. 여기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곳은 각기 다르지만, 도예의 '흙', 숫자의 '0', 영원불변한 존재 '시간'처럼 안병국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철화분청사기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창의한 도예를 '유한성'으로 귀결하고 무(無)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도 물레를 돌리고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 김민기 글 발췌 -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에 대한 그의 작업은 재현보다는 기존의 기형과 기법을 바탕으로 재료가 지닌 물성, 기법이 지닌 효과, 형태가 지닌 특징을 나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분명 처음 제작된 다구는 재현에 가까웠다. 하지만 작업 초기부터 탄탄하게 쌓아온 자신의 기술과 예술에 대한 관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세계의 확장을 수반했다. 그리고 지금 '연속과 유한, 영원'이라는 문화의 이름과 정착, 확장과 계승을 해석해 안병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김세린 글 발췌 -